

한국FPSB 김용환 회장

금융전문가 양성으로 한국 금융발전 기여하는 기관

한국FPSB는 전 세계 26개국 회원국과 발맞춰 CFP와 AFPK를 꾸준히 양성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개인재무설계를 우리나라에 보급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설립됐다. 한국FPSB는 개인종합재무설계 분야의 전문성을 위한 국제기준의 전문자격 인증제도를 도입, 유능한 개인종합재무설계사인 CFP 및 AFPK 자격인증자를 양성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CFP 자격이 처음 도입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배출된 재무설계 전문가는 CFP가 3,500여명, AFPK는 20,000여명에 달한다. 자격자들은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전 영역에서 분포되어 있다. 더 나아가 한국FPSB는 재무설계의 대국민 보급을 통해 가계재무상태 개선을 돕는 사회적 기관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 양성 시스템 마련 주력

지난 2018년 9월 한국FPSB 제3대 회장에 취임한 김용환 회장은 한국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CFP와 AFPK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취임 당시 한국FPSB는 금융위원회 종합감사를 받은 직후라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조직이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안정화와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외부적으로는 재무설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김용환 회장이 취임할 당시 한국FPSB는 시스템에 의한 운영 보다 일부 경영진의 리더십에 좌우되는 다소 비

체계적인 구조였다. 설립초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었지만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에 김용환 회장은 종합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 등을 제정했으며, 사내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 조직운영의 초석을 마련했다. 당면 과제를 완료한 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직의 지배구조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정관에 반영했다. 법인의 관계자들을 모두 고려한 정교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외형적인 토대를 완성한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재무설계와 CFP와 AFPK 자격 홍보에 많은 역량을 쏟았다. 그동안 자격인증자 양성 인증에 머물렀던 한국FPSB의 역할을 확대해 직접 금융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용환 회장이 직접 언론과의 인터뷰나 기고 등을 통해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자격자들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첨병 역할을 자임했다. 또한 홍보의 방편으로 CFP와 AFPK 자격자들과 함께 금융소비자 대상 재무설계 상담 대국민 캠페인을 매년 실시했다.

김용환 회장은 한국FPSB의 사업이 흡사 플랫폼 사업의 교차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구조로 짜여 있는 것 또한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자격자가 늘고 재무설계가 활성화 되면 시장에 참여하는 자격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강화되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윤리성의 상징 ‘CFP’와 ‘AFPK’

“2021년 6월 기준 국가에 등록된 민간자격은 41,675개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마련된 가운데 오는 9월부터 금융상품자문업이 도입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고령 사회 진입 등으로 인한 미래 불안과 현실 극복을 위한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종합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 분야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재무설계 전문가인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및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를 양성하는 기관인 한국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FPSB는 시장과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금융전문가를 양성해 금융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생활 안정과 향상에 이바지는 기관이다. “CFP 및 AFPK 자격자들이 금융자문서비스 분야에서 재무설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재무설계 활성화와 관련 홍보를 강화해 제2의 도약 추진할 것.”이란 포부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FPSB의 김용환 회장을 만나 한국FPSB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Editor 이준영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재무설계의 Global Standard



김용환 회장은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외부적으로는 재무설계에 대한 홍보에 주력해 왔다.

입니다.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관련 자격이 몇 개씩 등록되어 있죠. 금융에도 수많은 자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CFP와 AFPK가 금융권종사자, 학생,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전문성과 윤리성입니다. 고객에게 CFP 또는 AFPK 자격자라고 하기 위해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CFP와 AFPK 자격이 전문성과 윤리성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죠.”

CFP와 AFPK 자격 취득요건은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이를 자격취득의 4가지 요건(4E's)이라 일컫는다. 첫 번째 E는 교육요건(Education)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 FPSB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AFPK는 최소 80시간, CFP는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두 번째 E는 시험요건(Examination)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히 CFP의 경우에는 지식형과 사례형으로 구분해 2일간 걸쳐 10시간 시험을 치른다. 세 번째 E는 실무경험요건(Experience)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해도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최소한의 경험이 있어야 자격을 인증 받는다. 단, AFPK의 경우는 Associate 자격이므로 실무경험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AFPK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CFP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한국FPSB와 자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요건(Ethics)’이다. 나머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객우선의 원칙’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윤리규정에 대해 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자격인증이 가능하다. 또한 자격을 인증 받은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금융의 최신 지식을 학습하고, 윤리에 대한 재교육과 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자격을 갱신 받을 수 있다.

‘재무설계’, ‘CFP’와 ‘AFPK’ 자격 법제화 필요

김용환 회장이 현재 가장 관심을 두는 사업은 재무설계를 비롯한 CFP와 AFPK 자격의 법제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는 달리 아무리 우수한 민간자격이라도 법률과 제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격은 활용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최근 실감했기 때문이다.

“올 3월에는 그동안 갈망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고, 9월에는 동법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융상품자문은 우리 CFP와 AFPK 자격자들이 재무설계를 통해 그동안 제공해오던 서비스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업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당국은 금융

상품자문업자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한 기관의 자격만 인정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상품유형별로 각각의 자격요건을 지정했습니다. CFP와 같은 자격이 배제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유무 보다는 자격의 법률적 근거를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업의 활성화나 소비자 선택권 등이 무시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난 2017년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품판매를 금지하고 자문만 할 수 있는 IFA(독립투자자자문업) 제도가 실시됐지만 국내 IFA 등록자는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명분을 찾다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에 한국FPSB는 해외와 같이 재무설계를 입법화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전문 금융업으로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를 법으로 정의하고 금융전문가로서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호칭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재무설계 관련 별도의 법안 제정한 국가로는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이며 재무설계를 국가 자격과 연계 운영하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김용환 회장은 법제화를 통해 재무설계 생태계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과 재무설계 활성화,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나아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그는 과거 정부와 금융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설계의 대국민적 보급과 이를 통한 가정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소비자들이 검증된 재무설계사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도 언급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FPK와 CFP 자격자 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AFPK와 CFP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재무설계 전문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재무설계는 고도의 역량을 요하는 금융서비스로 전 세계적으로 가계재무컨설팅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고령화라는 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더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재무설계 관련 소비자경보를 자주 공지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경보는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데 알아서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대상 재무설계 피해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죠. 당국은 시장에 맡겨 두고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해외의 입법사례 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행복한 미래를 여는 현명한 선택

미국 CFP Board가 실시한 ‘코로나19 사태가 CFP 자격인증자 및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CFP 자격인증자 78%가 코로나19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는 환경으로 인해 고객 문의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미국인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애 처음으로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동안 재무설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에서조차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CFP와 AFPK 자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환 회장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도 백신 접종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본격적인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도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재무설계는 코로나19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일찍이 재무설계가 활성화된 미국과 달리 아직 국내 소비자들의 재무설계 인지도가 낮아 스스로 재무설계를 찾는 비율은 떨어지죠. 따라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이 재무설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는 재무설계 업계에 매우 큰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김용환 회장은 재무설계사를 찾는 소비자들이 단순 투자상담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객들은 미래 불안과 현재 상황 극복을 위해 재무적,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한 휴먼 터치를 원하며 이런 전문가가 CFP 자격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필요에 화답해 한국FPSB는 작년 ‘코로나19 극복 대국민 캠페인, 소원을 말해봐’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여한 금융소비자가 자격자를 직접 선택해 상담했으며, 자격자들은 비대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소비자들의 재무목표를 심층 분석해 이의 달성을 위한 맞춤형 제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 됐다. 약 2개월에 걸쳐 실시된 캠페인에서는 144명의 자격인증자들이 상담 인력으로 참여했다. 상담을 받은 소비자들은 상담사와 제안서 만족도에서 각각 93%와 92%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향후 계속 상담을 받겠다는 응답이 85.5%로 나타났다. 상담 후 소감은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을 알았다’, ‘재무목표 달성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재무설계가 실제 가계의 재무적·심리적 안정에 기여함을 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FPSB는 홍보에서도 자격자와의 소통 채널이나 SNS 또는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한 구조적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이처럼 유용한 금융서비스가 가계 경제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J*

PROFILE

주요 학력

△1972년 2월 서울고등학교 졸업 △1980년 2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1년 2월 미국 벤더빌트 대학원 석사 졸업(국제경제학) △2003년 8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졸업(경영학)

주요 경력

△1980년 5월 행정고시 합격(행시 23회) △1981년 5월 재무부 국제금융국 외환정책과 사무관 △1988년 4월 재무부 증권국 증권정책과 사무관 △1994년 12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서기관 △1995년 8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 파견 △1999년 6월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복지생활과장 △2002년 3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장 △2004년 2월 금융감독위원회 공보관(금감위, 금감원 통합대변인) △2005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2007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2008년 3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008년 12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11년 2월 한국수출입은행장 △2015년 4월 NH농협금융지주회장 △2018년 9월 (사)한국FPSB 회장

상훈

△1982년 10월 장관급 표창 (재무부 장관) △1982년 12월 대통령 표창 (대통령) △2005년 12월 홍조근정 훈장 (대통령)